

【종합·해설】

범여권 ‘국지적’ 이합집산 가속

민주-신당모임 2차 협상 결렬... 통합 불투명

김근태-천정배측 ‘독자적 통합 신당’ 공감

범여권의 정체개편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합을 위한 희생과 양보보다는 정파 간 이견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핵 분열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중도개혁통합 신당 추진협의회(중추협)’를 개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20일 다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신당모임은 지난 1차 회의에서 합의했던 사항을 원칙으로 돌리고 5월 초 독자신당 창당 뒤 5월 말 ‘당 대당’ 합당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새천년민주당 방식의

신설합당론으로 맞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배경은 통합신당 창당 과정에서의 주도권과 창당 이후 지분 문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단 양측은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김효석 의원, 통합신당모임 김한길 대표와 이강래 의원 간 4자회담을 17일 밤 갖고 접점을 좁히기로 했으나 이견의 골이 깊어 합의점 도출까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계인 민주당화연대(민평련)와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민생정치

모임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독자적 통합신당 논의를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중도통합신당 움직임에 맞서 진보적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신당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당간급 우리당 당적을 보유한 채 민생모임과 ‘구락부’ 형태의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통합논의는 물론 한미FTA 등 정치적 안건에 대해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들이 제3자에 대한 신당의 기질을 세우면 소속 의원들이 당적을 유지한 채 지원하거나 일부가 탈당해서 가세하는 방식의 ‘후보중심 3지대 신당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범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

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일본 방문“(대선 출마를) 하게 된다면 내가 깃발을 갖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오는 방식이지, 현역의원들의 이합집산에 내가 가는 방식은 아니다”며 독자 신당 창당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노무현 정부에서 내각에 몸담았던 장관이나 공기업 임원, 청와대 비서관 등 ‘왕의 남자’들이 참여하는 ‘참여정부 국정철학 평가모임’이 오는 27일 발족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병만 대통령 정무특보가 대표를 맡고 안희정씨가 조직, 천호선 전 의전비서관 사업기획, 김만수 전 대변인이 실무 책임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이르면 금주중 3~4개 장관 교체

해양장관·범제처장 포함

노무현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 중 3~4개 부처 장관(급)을 교체하는 정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교체 대상으로는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김선욱 범제처장, 박유철 보훈처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장관 교체 폭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다소 오래된 장관(급) 부처를 중심으로 교체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인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체 대상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추천회의와 이를 전후한 노 대통령의 최종결심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고위직 인사 때 기획예산처 차관을 비롯한 행정부 2차관, 보훈처·범제처 차장 등 차관급 인사도 일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목포~군산~수도권~북한 철도 구상”

우리당 김혁규 의원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17일 “남북공동체의 출발점인 목포에서 군산-홍성-수도권을 관통해 북한으로 가는 철도를 구상중이다”고 밝혔다.

〈사진〉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목포 웨딩팰리스 연회장에서 목포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한·한해권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발전 라인

이 북으로 이어지고 개성공단에 이어 해주와 신의주 등 다른 지역이 개발되면 남북공동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기술로 개발해 놓고도 실용화하지 못한 체 시험 운행만 하고 있는 세계 최첨단의 자기부상 열차를 목포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면 50분이 걸린다”면서 “이렇게 되면 부산, 마산, 진주, 여수, 순천, 목포권의 1천만 인구가 1시간 권이 돼 영,호남 이 동반 발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한미 FTA는 세계시장으로 통하는 경제고속도로를 개통한 것이다”면서 “전남은 농업진흥지역이 73%이고 농민의 재산 감소율은 30%로 그 피해가 클 것이지만 대규모 기업농과 고부가가치농업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김효석 원내 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도개혁 통합신당 추진협의회 제2차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우리, 연금법 개정안 각각 재발의

기초노령연금제 놓고 의견 엇갈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7일 이 달 초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과 공조해 지난 2일 양당이 분회의에 공동 발의했다가 부결된 수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연금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80%에 평

균소득액 10%를 주는 기초노령연금 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우리당도 민주당과 공동으로 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4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는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에 급여율 5%의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부결됐던 법안을 그대로 국회에 내고 우리당과 민주당도 연금 보험료율과 급여율만 다소 조정한 개정안을 재발의함으로써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이 특단의 정치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번 대회 중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연금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위한 법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제를 국민연금법 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미 별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통과한 만큼 국민연금법 개정 건전화에만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과 급여율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5세 이상 노인 80%에 평균소득액 10%가 지급돼야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해 우리당과 민주당은 “연금 재정 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혁신도시·순환도로 등 대규모사업 광주시, 재원 조달 특별기구 필요”

유재신 시의원 주장

광주시가 각종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은 17일 제 159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마무리 할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계속 사업과 신규사업이 40개 이상으로 이들 사업비만 3조 7천억원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 시 건설사업과 관련, 오는 2023년까지 모두 6천566억원의 지방비를 총담해야 하며 또 오는 2012년까지 완공 예정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총 1조7천억원, 도시 외곽순환도로에 2015년까지 3조4천702억원의 예산투입이 계획돼 있으나 아직 까지 재원 마련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또 지하철 2호선 1천605억원, 1호선 건설부채 상환비용 2천731억원,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도입에 따른 보상비의 부담 등 지하철 건설 관련 예산만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이병복 기획관리실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 시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국외와 민간부분 투자를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건설비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광주도시개발공사·전남개발공사에서

선 투자해 개발하고 이전 기업 등에 분양하는 사업이어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이병자 의원은 “광주시의 4급 서기관 이상 여성 고위직 공무원이 한 명에 불과하고 관리자급인 5급 사무관 이상의 경우 전체의 5.34%에 그치는 등 공무원의 남녀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늘리기 위해 민선 3기부터 꾸준히 발탁인사와 주요부서 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근무성적 평정 또는 승진시 양성평등을 최대한 보장해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10년까지 여성 취약계열 직렬 30% 이상 채용, 전략적 부서에 정원의 20% 이상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등 양성평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5월 1일 첫진도 (주강반,아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아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 (농성동)

서두르십시오! [병원·학원] 최적지!

특급입지!! 대단지 2,500여 세대 아파트 독점상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배된 상권형성, 확실한 수요층, 안정적인 수익성 이젠 당시는 실 새 없이 밀려오는 고객과 성공사업의 기쁨만 생략하십시오.

관/정/입/층

F4/5 **환원시설**
학원, 사무실, 교차, 독사실, 태권도장 등 (자유입주)

F2/3 **병·의원시설**
환원실, 민공, 이환내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피부과(피부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자유입주)

F1 **판매시설**
약국, 음식점, 유류점, 인형, 체력, 은행 동산사 등 (자유입주)

싱글북자!

2007년 6월 입점 예정

* 상가 사정은 소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처리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앞 동림동 다이빌딩 상가 임대!

따오르는 신개발지역의 중심!

최고의 고객층이 형성된 황금입지를 잡았다!

- 대단위 아파트 단지 진출임에 위치한 최대상권!
- 동림중, 삼익, 상라 등 반경 1Km 이내에 10,000여대의 아파트가 밀집

분양문의 062-531-3500 **다이주택주**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깔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썬김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막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깔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기파 인심아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기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원적외선 시공방법

원적외선 난방방식

원적외선 난방장점

원적외선 난방장점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 (062)262-0101**